

## 지도자 및 교원\_수기-24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임의 일기			
응모자	학교	○○○○○○○○	성명	○○○
학업중단 위기 원인	정서, 교우, 학습 부진, 무기력 등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참여일자(기간)	'24.03. ~ '24.10. (33주간)			
<p style="text-align: center;"><b>1. 바깥 마른 봄, 그래도 씨는 뿌려져야 한다</b></p> <p>아름다운 00도의 해발 500미터 지점, 평과 노루가 드나드는 이곳에, 00산을 닮은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높은 산의 변덕을 닮아 아침과 오후의 기분이 다르지만, 또 산의 굳건함을 닮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멀리서 보았을 때의 반짝거림은 탈해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폴폴’ 마냥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담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p> <p><b>①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고 외부센터 및 교육청, 소속 학교와 연계하기</b></p> <p>예멘의 난민으로 6년 전 중도 입국한 00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학교에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아버지의 외부 지원 거부 및 이혼으로 어머니와 자매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고립 상태였다. 두통, 복통 등을 늘 호소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도 몰랐다. 방법을 찾기 위해 도내 다문화 센터(나오미센터)를 찾아 학생과 함께 사무국장님(신부님) 면담을 신청했다. 학생이 원한다면 경제적 지원(사무실 아르바이트)을 마련해주신다고 했다.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며칠 뒤 학생은 한국에 와 처음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 고민 하나가 해결됐다. 아버지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용돈이 부족한 00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늦은 취침은 늦잠을, 늦잠은 결석을 불렀다. 때마침 ‘이주 배경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참관 신청 공문을 발견했다. 00과 함께 참관 신청을 했다. 학생에게 아르바이트가 아닌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해 보여주고, 학교에 오면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싶었다. 질문 시간에 장학사님께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는 교육기관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담당 장학사님께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다시 약속을 확인받았다.</p> <p>00학교는 원적교와도 긴밀히 소통한다. ‘소속 학교 방문의 날’이나 ‘담임교사 초청 공감 토크’와 같은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 중단 우려에 대해서 원적교와 위탁교, 학부모가 모인다. 학생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적교 담임과 늘 소통 중이다. 교육의 ‘3+1주체’가 이렇게 완성된다.</p> <p><b>② &lt;미술치유&gt; 등 ‘치유’ 대안 교과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재능을 알려주기</b></p> <p>월~목요일 오후엔 대안교과를 진행한다.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수련지도원 선생님께서 기획을 해주신다. 그중 화요일 진행되는 ‘미술치유’, ‘음악치유’ 시간에는 외부 센터로 찾아가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 시간 학생들은 심리 치유는 물론, 자신의 재능도 찾게 된다. 00은 특별히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교실에 들어가지 못해 연습장에 끄적이던 게 전부였다. 그러던 아이에</p>				

게 물감과 파스텔, 붓과 캔버스를 주고 지도를 받게 해주었다. 00은 눈부신 색감과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 캔버스와 물감을 사 주었다. 자신의 작품을 선물해주며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싶단다. 그러기를 한 학기, 말수가 없고 어두운 표정이 밝아졌고, 담임의 칭찬에 ‘저는 타고 났으니까요!’라며 00은 밝게 웃었다.

### ③ 내향성의 학생들은 밖으로, 외향성의 학생들은 안으로

우리 반인 무기력한 학생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집안으로 자꾸 숨는다. 내향인 아이들이 매주 맞는 수요일, 볼링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무거웠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부터 볼링을 신나게 해야만 했다. 환호성을 지르고 요란하게 웃었다. 그 뒤 아이들에게 볼링공을 준 뒤, 응원을 해주었다. 반복되는 수요일, 어느 순간 아이들은 수요일을 좋아하게 되었다. 칭찬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분위기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밝아지고 특정 요일이 좋아진다는 건, 학교생활도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며 혼자 흐뭇했다.

반대로 옆 반 외향성의 학생들은 자꾸 집 밖으로 나간다. 가출을 하고 부모님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00학교는 좋은지 출석은 하고 옆 반 선생님의 연락은 받는다. 가끔은 밤에 아이를 찾아 집에 데려다 주신다. 그럼에도 안 들어가는 녀석들은 낮에 급식을 잘 먹이고 내일도 학교에 나오라 격려해 준다. 부모님께 아이의 상태에 대해 알린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2. 뜨거웠던 여름 : ‘꿈지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국어) 수업 계획하기

00학교의 국어 수업은 주당 2시수이다. 일반 학교의 절반이다. 대다수가 기초학력 부진인 학생들에게 너무 부족하다. 아이들은 ‘수업’ 자체에 대해 흥미도 없었다. 이들과 수업을 하려니 매시간이 고통이었다. 그러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만든 ‘꿈지락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 ① 꿈지락 프로그램 분석

꿈지락 프로그램(중등용)은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에 4~5개의 모듈(활동 모음)이 포함된다. 집단 상담 수업에 활용하며 대상 학생은 우리 학교 대상군과 같은 심리·정서 위기군이였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따다가 국어 수업을 계획했다.

꿈지락 프로그램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훑어보았다. 1영역 ‘치유와 성찰’(관계 형성과 자존감 향상)과 5영역 ‘기초 학습 능력’(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기본 틀로 삼았다.

### ② 2015/2022 국어과 교육과정 핵심어 분석

꿈지락1영역과 5영역의 활동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추출했다. 읽기와 쓰기는 1학기 때 주로 다루었으므로 말/듣 영역의 ‘공감적 듣기’, 문법 영역의 ‘품사’, 문학 영역의 ‘시의 운율’을 찾고 수업을 구성하기로 했다.

### ③ 수업 설계 및 실현하기

1영역은 주로 서로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수업에서는 1영역1모듈1회기 활동3을 통해 ‘이 시간의 약속’을 정하고 5영역1모듈1회기(인간빙고게임)을 통해 어색함을 풀었다. 그 뒤 1영역1모듈1회기 활동4를 활용해서 현재의 감정을 형용사로 나타내게 한 뒤 ‘공감적 듣기’의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학생들의 ‘감정 표현 발표’에 반응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꿈지락 수업인 듯, 국어 수업인 듯, 알쏭달쏭하지만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공감적 듣기’라는 교과 내용 이해도 달성되었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이다. 그 외 품사는 1영역1모듈1회기 활동4와 5영역1모듈의 ‘술라리움’ 카드를 활용하기를 본떠 문장을 만든 후 동사/형용사를 문법적으로 구분하기, 시의 운율은 1영역2모듈1회기의 시 감상 후 느낌 표현하기 활동 후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서 운율의 형식 찾아보기의 활

동을 진행했다. (아래 ‘꿈지락 활용 국어 수업 계획 예시’)

단원	주제	프로그램	교과 관련 내용	평가	필요 용품	내용요소	
						꿈지락	국공기
1주차 “너와 나”	수업 약속 정하기	<b>01영역 1모듈 1회기 활동3:</b> 이 시간의 약속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브레인스토밍으로 칠판에 모두 적기 -다시 점검하여 찬성하는 것들만 모으기 -전지에 잘 적어서 붙여두기		-	전지, 매직	1영역 10쪽	
	친해지기	<b>05영역 1모듈 활동3:</b> 명함 만들기 <b>05영역 1모듈(B형) 1회기:</b> 서로 알아가기(인간 빙 고게임)		-		5영역 14쪽 5영역 42쪽	
	자기 소개 및 공감적 듣기	<b>01영역 1모듈 1회기 활동4:</b> 말로 해볼까 -현재 자신의 감정을 형용사로 나타내기 -형용사 하나를 골라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자 신이 만든 ‘명함’과 함께 자기를 소개하기 -발표를 들은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공감적 반 응하기	공감하며 말하기 • 공감적 듣기의 개념 및 방법 품사 • 형용사의 개념	활동지 참여		1영역 11쪽 활동4	2015 [9국01-02] 창비2-1/4(2) [9국04-04] 창비1-2/4(2)

### 3. 맑고 높은 가을, 단단한 웃음이 주렁주렁 열리길

#### ① 자연을 걷다 : 매주 숲길 걷기, 인성수련활동

매주 월요일 1교시, 아이들은 학교 안 숲길을 걷는다. 운 좋게도 00교육원 안에는 ‘000숲길’이 있다. 숲길을 걸으며 잡담도 하고 숨이 찰 무렵 멈추어 술방울 멀리 던지기 게임도 한다. 자연과 인간은 원래 하나임을 아이들도 느낀다. 한 학기에 한 번, 청소년 야영수련장으로 인성수련을 떠난다. 몽키클라이밍(나무 오르기)을 하고 짚라인을 타고 흔들다리를 건너며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한다. 무기력으로 1학기에는 구경만 하던 00이 2학기 몽키클라이밍을 보며 껏속말을 했다. ‘ 쌤, 저 정도는 저도 하겠는데요?’ 그렇게 아이는 나무를 올랐고, 그렇게 단단해졌다.

#### ② 나누고, 알고, 체험하기 : 봉사활동, 지역 바로알기 등 창의적체험활동

매주 금요일, 창의적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전문경력관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짜 주신다.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음식을 해 나누고 정원을 가꾼다. 지역의 특색에 대해 배우고 쓰레기를 줍는다. 어른들의 칭찬은 당연하고 보람은 덤이다. 평소에 가기 힘든 체험처를 다닌다. 아이들은 제 사진도 찍어 달라며 애교를 부린다.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쌓여 학교 생활을 좋아하고, 떠나기를 아쉬워한다. 어느 종례 시간, 내일이 재량휴업일임을 알리자 00이 한숨을 쉰다. “하, 쌤. 재량휴업일은 왜 하는 거예요?” 학교 부적응으로 온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00은 학교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

#### ③ 개인 방(교실) 꾸며주기 : 공황 극복하기 ‘쌤, 제 방에서 잠깐 쉬다 와도 될까요?’

대안학교에 근무하기 전, 나는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원인을 개인의 태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 와 보니, 단순히 ‘태만’이 아닌 복잡한 인간관계가, 불안과 공황이, 과거의 상처가,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이 있음을 알았다. 그 중 공황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10명이 되는 교실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00과 000을 위해 빈 교실을 각자의 방으로 만들어 주었다. 책을 좋아하는 00을 위해 작은 책방을, 혼자 있길 바라는 000에게 000만 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보드

게임이나 간단한 책, 수납장을 배치했다. 단체 급식 시간에 따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힘이 들 땐 언제든지 자신의 방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되, 마음이 편찮아지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지도하여 ‘상황 노출 연습’을 시켜주었다. 그렇게 00은 조금씩 ‘방’에서 나오는 중이다.

#### ④ 반별 활동 : 숲길 걷기, 마시멜로 구워 먹기, 달고나 만들기

매주 화요일 1교시, ‘우리반’만의 활동을 한다. 아이들과 나는 산책을 하고 보드게임을 한다. 날씨가 좋으면 2층 테라스에 나가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편다. 아이들은 휴대용 버너에 마시멜로를 굽고 달고나를 만든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깔깔거린다. 얼굴에는 마시멜로와 달고나가 묻고, 아이들의 웃음이 나무를 타고 학교 밖으로, 숲으로 퍼진다.

#### 4. 겨울쫄은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

추운 겨울, 어린 나무들은 한파에 뿌리가 얼기도 한다.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거나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줄 수도 있지만, 한 번 뿌리를 내린 이상 나무는 제 자리를 버텨야 하고, 또 자라야만 한다. 농부는 쫄이나 낙엽으로 무심히 보온재를 덮어준다. 보살핌을 받은 나무는 몇 년 뒤면 보온재 없이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굵은 가지와 넓은 나뭇잎을 만든다. 나뭇잎은 다시 낙엽이 되어 날리고 또 다른 어린 나무들의 보온재가 되어 줄 것을 믿는다.

어느 날인가, 내 눈과 마주치자 환히 웃는 00에게 내년에는 원적교에 돌아가라고 했다. 1학기부터 봐 왔던,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미 다 써버린, 00은 더 이상 어두운 아이가 아니었다. 얼굴엔 아이다운 웃음기와 장난기가 넘쳤다. 자기만 보면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나며 입을 뻐죽 내미는 아이를 보며 ‘넌 잘 할 수 있으니까.’라며 다정히 웃어주었다. 아이도 내 마음을 아는지 미소로 대답했다.

아이들이 00학교에서 받은 작은 따스함으로 지금의 추위를 버티고 제 자리로 돌아가 튼튼한 가지를 뻗었으면 한다. 넓은 잎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또 다른 보온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 별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새싹처럼 가능성이 넘치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새싹과 어린 나무들을 살려낼 아이들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의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란다.